

“불요불급 본예산 코로나19 예산으로”

두세훈 도의원, 감염병 위기 극복 새 대응방안 제시 “축제 등 행사 예산, 예산 전액 또는 일부 감축 필요”

전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 의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의 불요불급 본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두세훈 의원은 따르면 축제 등 행사 경비 일부 반납, 홍보활동비 등 각종 인센티브 등 예산 축소, 기타 실국별 불요불급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2020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북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기본으로,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 분야별 추가적 도민지

원책을 마련해 조속히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는 하반기로 연기하지 말고 과감히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의 행사 및 축제도 가능한 간소화해 그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 예산의 경우 연 결산 때까지 불필요하게 묶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의원은 “해의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관광 관련



예산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외에도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수 조사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지금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변경조치가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재난상황 종료 후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 정상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정치권 환영

민생, 긴급 원내대표 회동 제안·정의, 여당안보다 확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공개 제안하자 정치권은 6일 큰 틀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4월 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을 선제안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소득, 계층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민생당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여당안보다 확대된 국민 일인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뉴스



국회 본청 앞 나란히 서있는 유세버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는 미래통합당 유세버스와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 있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전북·전주 혁신적 발전 노력할 것”

전주갑 선거구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선거방송 토론회 참석 및 주말 유세 등으로 바쁜 선거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후보는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는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기호1번 김윤덕이 문재인정부 성공! 전북과 전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포함해, 전주·완주통합 문제,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불림)해결방안, 한옥마을 활성화방안, 코로나19 대책 등을 주제로 후보자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주말을 맞아 많은 등산객들이 몰려든 모악산 일원에서 득표 활동을 이어갔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선거구 윤준병 후보는 최근 정읍시 칠보면 장날을 맞아 칠보소재지에 펼쳐진 장을 찾은 주민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렵지만, 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주민들의 협조로 우리 지역은 현재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후보로서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금융지원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봄에 씨를 뿌리며 수확 후 관로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당선 되면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인법 과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윤 후보에게 “당선 후에도 자주 농촌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까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반

유성엽 “보육난 해소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해야”

민생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가 보육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유성엽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휴원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경우 자치 보육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휴원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연장 결정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대책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맡겨야 할 학부모님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보육 종사자들 모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지리산권 스포츠 종합훈련장 설립 공약 제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후보는 지난 3일 지리산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에 이어 6일 “운봉의 해발 500m 고지대에 스포츠 종합훈련장을 설립해 국내외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촌이 서울(태릉), 강원(태백), 충북(진천) 등 3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나 중부권 이남에는 선수촌이 없어 열악한 상황으로, 지리산권에 영호남을 아우르고 전북 뒤편을 찾을 수 있는 스포츠재활센터 겸 전지훈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리산권 스포츠 종합훈련장이 설립되면 지리산권 주변의 양궁장·사격장(임실), 테니스·정구장(순창), 인라인롤러장(남원), 태권도·스키장(무주) 등과 연계해 4개월 전전후 종합훈련이 가능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이강래 후보에 “문 대통령 욕보이지 말라”

무속속 이용호(남원순창임실) 후보 대책본부는 6일 “이강래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서라도 자기가 당선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탄핵을 당하셨는가? 왜 대통령이 마치 탄핵 죄라도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는 것인가? 라며, 이는 총선 이후 탄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강래 후보는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지만, 대통령을 끌어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자체가 불경스럽다”며, “이강래 후보는 더 이상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자기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호 후보는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열심히 도울 것이다.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완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완주군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진안·무주·장수군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1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4월 임시국회를 열어 2차 코로나 추경안 통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이 코로나19에 대응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진안·무주·장수군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단체장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지려면,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 2차 코로나 추경안을 통과가 중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서 추경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천명했다. /특별취재반

